

같이 보기

: 현장 인터뷰 - 충남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

글 안유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노·사·민·정이 당사자가 되어 주체 간에 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충청남도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강홍진 사무국장을 만나 충남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 사업과 활동,
그리고 안전한 산업보건 환경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〇〇

충남의 노·사·민·정 주체들이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 일자리,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충청남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〇〇

Q1 충남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_____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2010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통합 거버넌스 사회적 협의체로 충남의 고용·노동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충남의 노·사·민·정 주체들이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 일자리,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충청남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Q1 노사민정협의회 조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_____ 충청남도지사가 위원장이며 지역 노·사·민·정 대표자 26명으로 구성된 본 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를 보좌하고 노·사·민·정 사업을 추진·공유하는 실무위원회와 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제별로 6개 분과위원회(노동권익, 노사관계, 안전한 일터, 일자리, 노사공동훈련, 광역·기초협력)와 3개의 특별위원회(인적자원개발위원회, 노사분쟁조정·중재단, 노동전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는 150여 명입니다.

같이 보기

: 현장 인터뷰 -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위_광역시초협력 분과위원회 / 아래_노사공동훈련 분과위원회

노동전환특별위원회

Q | 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현재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 및 고용 위기 극복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민정협력사업 강화와 함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충청남도 노동정책 실행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이주, 여성, 비정규직, 플랫폼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의 증진사업,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노사 간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교류를 통한 노사협력 증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대화를 주축으로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역 내 고용·노동 유관기관 교류 및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통해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사업,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 시·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지자체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안전 컨설팅, 캠페인과 같은 지역 내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

취약계층 노동자(이주, 여성, 비정규직, 플랫폼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의 증진사업,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노사 간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교류를 통한 노사협력 증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9



위_일자리 분과위원회 / 아래_안전한일터 분과위원회



노동권익분과위원회

충남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는 연중 4~5회의 정기회의와 상·하반기 합동 워크숍을 통해 교류하고 있으며, 각 분과별 의제에 맞게 주요 사업을 추진

△노동권익 분과위원회

- 미조작 취약 노동자 및 필수노동자의 보호 강화
- 착한일터 플러스 인증 사업 및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간담회

△노사관계 분과위원회

- 노사 간 파트너십 강화로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 증진
- 충남노사포럼과 충남 노·사·민·정 '동행'사업

△안전한 일터 분과위원회

-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
- 혹서기 옥외·고열 작업 노동자 보호 사업, 작은 사업장 안전 컨설팅 지원 사업,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교육 등

△일자리 분과위원회

- 청년과 지역 특성 일자리 정책 개발 및 발굴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강구
- 충남 일자리 정책 발굴 토론회와 충남 잡(JOB)담 콘서트-청년 잇슈

△노사공동훈련 분과위원회

- 중장년층의 이·전직, 창업 교육훈련 대한 방안 모색

△광역·기초협력 분과

- 도·시군 사회적대화 의제 발굴 및 노사민정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 활성화 중점
- 광역·기초협력 분과위원회: 도시 군 공동 산업 안전 캠페인 및 산업안전보건수첩 발간

같이 보기

: 현장 인터뷰 - 충남노사민정협의회



Q | 안전한 일터 분과위원회에서 2021년도 5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들의 반응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_____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목표를 실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충남 지역 제조업 산재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에서 착안, 도내 작은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기획·운영하였습니다. 대상 선정 초기에 참여를 주저하는 사업장들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사업을 수행해주신 대한산업보건협회 천안산업보건센터의 꼼꼼한 맞춤형 안전 컨설팅으로 “법령을 제대로 몰라서 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많이 배우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의 평가를 들으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작년과 올해 사업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년의 성과를 이어 ‘작은 사업장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속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역량 제고와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는 충남북부권에 자동차, 철강, 반도체, 화학 관련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빈번한 노사갈등과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재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안정, 노동권익 보호,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안전한 일터 실현 등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의제입니다. 이중 안전과 생명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2022년 충남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 과제로 '안전'과 '산업전환'을 상정하고 안전한 일터 분과위원회를 필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용·노동 통합 거버넌스 사회적 대화 협의체인 충남노사민정협의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사민정사무국이 충청남도 노동정책과 산업안전보건 정책 실행 지원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66

안전과 생명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2022년 충남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 과제로 '안전'과 '산업전환'을 상정하고 안전한 일터 분과위원회를 필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

충남노사민정협의회 강흥진 사무국장



경력

- 1991. 9. ~ 2008. 9. 경신전선 노동조합 위원장
- 2002. 6. ~ 2019. 12.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 의장
- 2007. 3.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 2008. 5. ~ 2016. 4. 충남노사민정협의회 분위원
- 2012. 3. ~ 2020. 1.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
- 2020. 2. ~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